

*정확히 안 들리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체크했습니다.(몇 번을 들어도 잘 안 들림)

시간도 함께 기록했으니 꼭 듣고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46과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다윗 - 김병교 목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더욱더 감사드리시는 것은 저희들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교사의 직분 허락해 주심 허락해주심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삶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더욱 충만하여 저서 그 은혜와 사랑이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행어나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나고 죄 가운데에 또 불순종가운데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달되는 그 통로가 막히지 않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저희들 삶에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있다면 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자리에 주님의 마음과 뜻만 가득 채워주셔서 저희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자리에 모여서 공과 말씀을 듣고 또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과 교훈을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과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합당한 마음과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또 오늘 새로운 각오와 결심

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땅히 이 자리에 함께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교사들 어디에 있든지 함께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광주교회 대전도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영혼들 참석하 해서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 한 영혼도 잃어지지 않고 다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주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모두 구원받아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고 저희들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시종도 주 성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24장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절 읽고 선생님들이 한절 읽고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아니 24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흑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도이다

Quando Saúl volvió de perseguir a los filisteos, le dieron aviso, diciendo: He aquí David está en el desierto de En-gadi.

(2)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Y tomando Saúl tres mil hombres escogidos de todo Israel, fue en busca de David y de sus hombres, por las cumbres de los peñascos de las cabras monteses.

(3)길 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밭을 가리우러 들어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Y cuando llegó a un redil de ovejas en el camino, donde había una cueva, entró Saúl en ella para cubrir sus pies; y David y sus hombres estaban sentados en los rincones de la cueva.

(4)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네 소견에 선한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겹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Entonces los hombres de David le dijeron: He aquí el día de que te dijo Jehová: He aquí que entrego a tu enemigo en tu mano, y harás con él como te pareciere. Y se levantó David, y calladamente cortó la orilla del manto de Saúl.

(5)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뺨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찢려

Después de esto se turbó el corazón de David, porque había cortado la orilla del manto de Saúl.

(6)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Y dijo a sus hombres: Jehová me guarde de hacer tal cosa contra mi señor, el ungido de Jehová, que yo extienda mi mano contra él; porque es el ungido de Jehová.

(7)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Así reprimió David a sus hombres con palabras, y no les permitió que se levantasen contra Saúl. Y Saúl, saliendo de la cueva, siguió su camino.

(8)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가로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También David se levantó después, y saliendo de la cueva dio voces detrás de Saúl, diciendo: ¡Mi señor el rey! Y cuando Saúl miró hacia atrás, David inclinó su rostro a tierra, e hizo reverencia.

(9)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Y dijo David a Saúl: ¿Por qué oyes las palabras de los que dicen: Mira que David procura tu mal?

(10)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 이다 혹은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였나이다

He aquí han visto hoy tus ojos cómo Jehová te ha puesto hoy en mis manos en la cueva; y me dijeron que te matase, pero te perdoné, porque dije: No extenderé mi mano contra mi señor, porque es el ungido de Jehová.

(11)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겹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아실찌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Y mira, padre mío, mira la orilla de tu manto en mi mano; porque yo corté la orilla de tu manto, y no te maté. Conoce, pues, y ve que no hay mal ni traición en mi mano, ni he pecado contra ti; sin embargo, tú andas a caza de mi vida para quitármela.

(12)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

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Juzgue Jehová entre tú y yo, y vénguese de ti Jehová; pero mi mano no será contra ti.

(13)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Como dice el proverbio de los antiguos: De los impíos saldrá la impiedad; así que mi mano no será contra ti.

(14)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Tras quién ha salido el rey de Israel? ¿A quién persigues? ¿A un perro muerto? ¿A una pulga?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Jehová, pues, será juez, y él juzgará entre tú y yo. El vea y sustente mi causa, y me defienda de tu mano.

오늘은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다윗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성경에 가장 많이 언급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 장막에 거하는 것을 참 안타깝게 여겨서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성전을 지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렇지만 다윗은 군인이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이 짓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정말

사랑하셨고 다윗의 일을 예수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그 영원한 위로 보장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정말 다윗을 만나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을 때 참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의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여기 이제 사무엘상 14장과 26장에 나오는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그 기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그 보복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제한하는 그 넓은 마음과 그리고 자제력 그리고 어 어떤 좀 뭐라고 할까요?

어 그 이성과 이런 어떤 합리적인 것 보다는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하고 살아가면서 또는 학생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과 이런 어떤 원망과 불평의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직접적으로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위로받을 처지에 있을 때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시편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죽음의 길을 많이 겪는 가운데서 자신은 어떠한 태도로 사울을 대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어떤 당면 과제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적극적으로 도망을 다녔습니다.

물론 세를 규합해서 이렇게 싸움을 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이 사울이 하

나님의 기, 기름부음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은 하나님이 폐하실 때 까지는 이 손을 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손을 대는 것이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힘들잖아요

왜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계속 봐야 되고 그 사람은 왕이고 자기는 집에 머물지도 못하고 평안한 생활이 아니라 계속 광야에 쫓겨 다니면서 아니면은 뒤에 보면은 망명가게 되잖아요

망명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그 어려움이 있다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불평, 불만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많은 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억울한 사정 그리고 자신의 그 바람 그리고 하나님이 좀 빨리 이 원수를 좀 제어해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러시니까 힘듭니다 라고 솔직히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많은 시를 지었습니다.

물론 죄를 지었을 때도 시를 지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고 그리고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시를 지어서 이제 하나님께 표현을 했습니다.

특별히 유다 광야에,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가 이제 시편 63편이고요, 그 굴에 있을 때 사무엘상 22장과 24장에 굴에 있었는데요 이때 지은 시가 시편 57편하고 146편입니다.

한 번 보시면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 아마 우리도 다른 분들을 통해서 진짜 어려움을 겪을 때 다윗이 지었던 이 시를 조금 읽어보면서 위로를 좀 받기도 하고 격려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다윗은 어 이제 결정적인 복수의 기회를 2번을 사용하지 않았습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했다 하셨잖아요

잘했다

그 왜 다윗은 아쉬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이 그 부하들은 이걸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렇지 않고서야 아니 우리가 이 굴에 숨어있는데 사울이 들어올리가 없잖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거죠

그랬을 때 보통 사람이라면 또 상황을 보고 우리가 보통 판단을 하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천재일호의 기회다. 끝내자. 여기서. 나에게 어떤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종식 시킬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아마 스스로 결단해서 끝냈을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성과 믿음의 차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12:52) 성경 보면요 4장을 한 번 보겠습니다.

굴에 갇힌 것은 다 아실거고요

4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네 소견에 선한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겹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Entonces los hombres de David le dijeron: He aquí el día de que te dijo Jehová: He aquí que entrego a tu enemigo en tu mano, y harás con él como te pareciere. Y se levantó David, y calladamente cortó la orilla del manto de Saúl.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그 사울도 원수를 이렇게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건 살려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 뒤에 19절에 보면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Porque ¿quién hallará a su enemigo, y lo dejará ir sano y salvo? Jehová te pague con bien por lo que en este día has hecho conmigo.

이제 복수의 기회가 와, 왔을 때 그 기회를 사용 안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이 상황을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시다.

옷자락 하나 살짝 베고 이 다윗은 정말 거기에 하나님을 대입시켰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사울을 죽이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봤어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5절에 보면

(5)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뺨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찢려

Después de esto se turbó el corazón de David, porque había cortado la orilla del manto de Saúl.

(6)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와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Y dijo a sus hombres: Jehová me guarde de hacer tal cosa contra mi señor, el ungido de Jehová, que yo extienda mi mano contra él; porque es el ungido de Jehová.

(7)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Así reprimió David a sus hombres con palabras, y no les permitió que se levantasen contra Saúl. Y Saúl, saliendo de la cueva, siguió su camino.

다윗은 정말 이 양심이 청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고 내 앞에 앞서 행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이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벤 것 때문에 마음에 찢렸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다윗에게도 사울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자기를 그렇게 많이 괴롭혔는데 그 마음속에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실행을 안 했어요

죽일 수는 없고 살짝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그 마음에는 이제 뭔가 자기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

는 **한편으로(?15:49)**거짱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찢었습니다.

원래 사울의 마음을 찢러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다윗이 은혜를 베푸니까 사울에게도 뭉침이 왔어요

뒤에 보면 다윗 사울이 다윗에게 대해서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짱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상대방에 대한 품는 마음이, 그리고 어떤 해하고자 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냐?

이게 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찢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양심이 바른 자 하나님과 올바로, 올바른 관계를 맺은 자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 반응하는 너의 반응이 뭐냐는거죠?

과연 나를 인정하고 내게 말기고 나머지 모든 부분을 말기고 정말 믿음으로 견딜 수 있냐 인내 할 수 있냐?

믿음은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그러짱아요?

그런데 그 인내가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인내하는 믿음이 **군처럼(?17:11)** 완전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사울을 해하려한 다윗의 마음에 찢림을 주셨어요

자 옷자락 벤 거 우리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럴잖아요 나를 막 괴롭히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 대해서 괴롭다라고 표현 하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별거 아니잖아요?

사울의 옷자락 벤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저녁에 기도할 때 보면 찢리시잖아요.

가하나? 그게 진짜 합당하나?

저도 그런 찢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들이 하는 자그마한 불평과 원망 비난이 이 다윗이 옷자락 벤 것처럼 이제 그것도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치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 이성으로는 그 분이 이러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얼마든지 내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야기 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도 합당치는 않다라는 거죠

마음에 찢리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들이 동작해야 되는 것은 이성이 동작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동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동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성으로 동작하면 이 교회라는 게 아니면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잘 안 되잖아요?

될 수가 없죠

왜냐면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힘을 합하고 뜻을 합하는데 이게 어떻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 대한 기대를 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뭔가를 공급하신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뭔가를 은혜를 보이는 상황으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상황을 보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합당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porque por fe andamos, no por vista);**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 하면은 일을 그르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알고 듣고 판단하는 것이 완전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실수할 수가 있죠?

그러나 믿음으로 한다면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그 안에 그 분이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을 깨우쳤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해준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더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그리고 우리 부서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부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뭔가 어 그 믿음은 그 행함으로 나타나잖아요?

믿음에는 또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한 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5)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Dijeron los apóstoles al Señor: Auméntanos la fe.

(6)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Entonces el Señor dijo: Si tuvierais fe como un grano de mostaza, podríais decir a este sicómoro: Desarráigate, y plántate en el mar; y os obedecería.

제자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믿음 없다라고 하시고 너희에게 진정으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정말 능력이 나타났을거다

뽕나무가 뿌리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얘기해도 심기웠을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 안에 이 믿음이 온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은 내가 변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구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고 그리고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가 문제지 다른 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영웅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종착시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상황은 모든 게 죽이라는 쪽으로 지시를 하고 있는데 그걸 딱 거스려서 죽이는 것을 금하고 자기도 금했고 부하들도 금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도 어떤 상황을 볼 때 그 상황이 너무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딱딱딱 딱 맞아가지도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대입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 여호와와 기름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이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찌니라
No injuriarás a los jueces,[a] ni maldecirás al príncipe de tu pueblo.**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과 유사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물론 사람이 세웠지만 하나님이 세운 걸로 알고 이제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욕하는 것 저주하는 것도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마 다윗은 이 모세 5경 배웠을 테니까 출애굽기의 이 말씀을 아마 기억을 해서 그리고 여호와와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율법에 표현 된 것은 없지만 아마 연결은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기워진 자세에 대해서 생각하고 만약에 어떤 불편한 마음을 표출하는 것도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나눈다는 데에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했냐 다윗은

이 사무엘상 가보겠습니다.

24장

24장 8절입니다.

(8)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가로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También David se levantó después, y saliendo de la cueva dio voces detrás de Saúl, diciendo: !!Mi señor el rey! Y cuando Saúl miró hacia atrás, David inclinó su rostro a tierra, e hizo reverencia.

(9)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Y dijo David a Saúl: ¿Por qué oyes las palabras de los que dicen: Mira que David procura tu mal?

하고 쪽 이제 나는 왕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나는 왕을 해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Jehová, pues, será juez, y él juzgará entre tú y yo. El vea y sustente mi causa, y me defienda de tu mano.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잖아요?

누가 옳고 그른 것은 지금 내가 판단하기 보다는 하나님 판결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판결을 통해서 어떤 결정이 이제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받아들일 마음이 있었잖아요

여기 보면 믿음을 가진 이 다윗은 이제 자신의 상황을 이제 하나님께 먼저 이야기 했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사울에게 이제 이야기 했죠

그런데 죽이기 전에 이제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었는데 그 취하지 않고 거기서 물러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아뢰고 그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상황에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정직하게 아뢰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것 이게 정말로 필요한 거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있어요

본인이 만원이 필요하면 내가 만원을 벌어서 어? 이렇게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다윗은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142편 한 번 보시죠

우리가 흔히들 한계상황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다 이런 기도는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시편 142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Con mi voz clamaré a Jehová;

Con mi voz pediré a Jehová misericordia.

(2)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Delante de él expondré mi queja;

Delante de él manifestaré mi angustia.

(3)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Quando mi espíritu se angustiaba dentro de mí, tú conociste mi senda.

En el camino en que andaba, me escondieron lazo.

(4)내 우편을 살펴 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Mira a mi diestra y observa, pues no hay quien me quiera conocer;

No tengo refugio, ni hay quien cuide de mi vida.

(5)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

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Clamé a ti, oh Jehová;
Dije: Tú eres mi esperanza,
Y mi porción en la tierra de los vivientes.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아마 이게 아둘람 굴에 있었는지 지금 이굴에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이렇게 그 우리가 구별하기는 힘들지만 하여간 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렇게 아둘람 굴에서도 사울에게 쫓겨서 숨어들었던 거고요, 지금도 사울 왕에게 쫓겨서 숨어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했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 원통함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내 우환을 하나님께 진술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사울은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고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힘도 없고 그리고 지혜도 없고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아직은 허락을 안 하셨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

내 심령이 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우편에서 사람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피난처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정직하게 기도 했잖아요

참 이게 이런 기도가 우리들이 살면서 이제 하나님께 징계 받는 상황에서 이런 기도가 꽤 많이 나옵니다.

앞뒤 사방을 꼭 막으시고 정말 위로 하나님께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기도 마, 많이 해보셨을 거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어려운 상황들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과 꼭 그 정말 골방에서 만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결해주셨고 이렇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도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전지하신 분이 뭘 모르시겠어요?

아쉽지만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하세요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무 꾸미는 거 글썽 그 저는 어렸을 때 구원을 받아서요 꾸미는 기도를 드리면 마음이 많이 불편해져요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한테 그냥 직접적으로 하나님 이게 필요하고요 이걸 어렵고요 이걸 해결해 주셔야 되고 뭐 이런식으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대생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많이 이렇게 쉽게 풀어

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은 잘하는데 풀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풀면 그 핵심이 희석이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대로 고하시면 될 거 같아요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기도일 뿐만 아니라 노래잖아요

이거 저기 곡 붙여가지고 노래 불렀어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의 마음을 시로 표현하고 이제 기도하고 그것을 곡으로 바꿔, 바꿔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듣도록 이렇게 하는 거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편 51편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밧세바 취하고 회개 기도하는 것도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정말 다윗은 정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좋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죄 짓는 것도 있지만 회개도 빨리했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
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부르 짓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리고 57편도 한 번 보겠습니다.

57편

그 위에 보면 이제 이 시를 쓰게 된 동기입니다.

다윗의 막담 시 영장으로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자 이제 도망갈 데가 없어서 굴로 도망갔습니다.

이랬을 때 마음이 진짜 어 이제 목숨이 촌각에 달렸잖아요.

만약에 발견되면 그대로 죽는거니까

이랬을 때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참 이 기도를 보면 죽음의 **위기에 찬 (33:24)** 사람이라기보다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구원은 확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절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Ten misericordia de mí, oh Dios, ten misericordia de mí;

Porque en ti ha confiado mi alma,

Y en la sombra de tus alas me ampararé

Hasta que pasen los quebrantos.

여기 보면 **간구와(33:52)** 노래를 하고 있죠

2절에 보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Clamaré al Dios Altísimo,

Al Dios que me favorece.

하나님께 더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어 지금 굴에 갇힌 사람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기는 참 쉽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사업이 망했다거나 아니면 지금 완전히 코너에 몰려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찌라

El enviará desde los cielos, y me salvará

De la infamia del que me acosa;

사방은 막혀있어도 하늘은 뚫려있기 때문에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하늘로부터는 올 겁니다.

이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확신을 가지기는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다윗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위인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Mi vida está entre leones;

Estoy echado entre hijos de hombres que vomitan llamas;

Sus dientes son lanzas y saetas,

Y su lengua espada aguda.

대적이 참 강해요

이제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찬양해요 5절에

(5) 하나님이어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
아지기를 원하나이다

Exaltado seas sobre los cielos, oh Dios;

Sobre toda la tierra sea tu gloria.

그다음에 6절에 자신의 상황을 한 번 더 아뢰고

7절에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Pronto está mi corazón, oh Dios, mi corazón está dispuesto;

Cantaré, y trovaré salmos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또 다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랬고요

그리고 8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게 곧 죽을, 음의 위기에 찬 사방이 꼭 막혀버린 사람의 시라고는 좀처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장에서 경험을 했고 그리고 광야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목동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을 경험 했어요

신앙의 경험이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이 이 굴에서 조차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다윗은 보통사람이 겪지 않아야 될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음도 넓어졌고 용서나 용납하는 것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억울한 사람들,, 마음에 눌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로 모였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다윗에게 마음을 주고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윗의 신앙의 향기라는 것이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시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다윗의 삶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시가 얼마나 정말 위대한 시이고 이 신앙이 담겨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제가 이 시를 지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저에게는 이런만한 이런 믿음이 없었고 상도 없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릴 수는 있어도 이건 제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삶을 아는 많은 사람들은 이 시를 읽으면서 많은 위로를 얻습니다.

이 영혼이 움직여요.

그 다윗의 시를 읽으면 용기도 생기고 그 눈물도 나오고 감사도 되고 찬양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많은 어려움들을 다 겪었기 때문에 이 시 한 편에다가 자신의 모든 인생을 직접 시켰잖아요.

그래서 정말 고통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의 그 눈물 한 방울하고 그리고 그 말 한 마디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는 하는 말 한마디와 그 눈물 비슷한 거 이렇게 액체가 나오는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많은 환난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바울 사도도 권면 했습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 이니라 그것이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우리도 다른 형제 자매님들에게 진실한 간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간증이 한편의 시가 되잖아요

그리고 한 편의 어떤 아름다운 그 그 감동의 눈물을 다른 사람에게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겪지만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들 겪게 함으로써 나의 삶의 시편도 만들어 내시고 욕기라는 전집도 만들어 내시고 많은 뭐 사도행전도 이어가신다고 들었잖아요?

아마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내 마음에 확증됐다는데 무엇에 대한 마음이 확증되었냐

대적에 대한 태도와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확증이 돼 있었어요

마음속으로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냐? 아니거든요 원수는 내가 안 갚고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됐냐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도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몸 된 교회 안에 남아있겠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에 있겠다 라는 게 다윗의 마음이었잖아요

우리 마음을 확정하지 않으면 **쉽지(40:25)**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대적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게 로마서 이제 물론 잠언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요, 집약 키셔 놓은 게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26장은 어 로마서 12장 그 14절부터 21절에 대한 완전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한 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Benedicid a los que os persiguen; benedicid, y no maldigáis.

(15)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Gozaos con los que se gozan; llorad con los que lloran.

(16)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체 말라

Unánimes entre vosotros; no altivos, sino asociándoos con los humildes. No seáis sabios en vuestra propia opinión.

(17)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No paguéis a nadie mal por mal; procurad lo bueno delante de todos los hombres.

(18)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Si es posible, en cuanto dependa de vosotros, estad en paz con todos los hombres.

(19)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No os venguéis vosotros mismos, amados míos, sino dejad lugar a la ira de Dios; porque escrito está: Mía es la venganza, yo pagaré, dice el Señor.

(20)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Así que, si tu enemigo tuviere hambre, dale de comer; si tuviere sed, dale de beber; pues haciendo esto, ascuas de fuego amontonarás

sobre su cabeza.

(21)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No seas vencido de lo malo, sino vence con el bien el mal.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또 속옷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겉옷 까지도 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원수를 갚는 것을 넘어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대적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럴 마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은 확실한데 내가 이럴 마음이 없을 뿐더러 그런 마음이 또 안 돼요. 그죠?

수준이 안 된다는 거죠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늘에 있다면 나의 삶은 너무 낮은데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다른 분들을 판단하고 비난하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비난과 판단으로 딱 재면 너희 수준은 거기 반도 안 된 다라고 얘기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런 마음이 없을 때 이런 마음이 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넓혀 놓으실 테

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자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친히 갚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굳이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가리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희한하게 이 사울이 뒤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잖아요

나는 너를 해하려했지만 너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참 너는 대단한 사람
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 왕 삼아주실 거다 이렇게 축복을 하잖아
요?

그런, 그런 축복이 원수의 입에서 나오게 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보통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라 저주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그 원수를 내편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

함으로 네 숯불을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숯불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심판의 숯불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관을 해야 해서 만약에 숯불이 꺼지면 옆집에서 빌려왔어야 된대요

그래서 옛날 성냥 같은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옆집에서 숯불이 꺼지면 이쪽에 있는 집에 있는 숯불을 나눠서 빌려줘서 화로에 이고 갔답니다.

역시 은혜를 베풀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은혜를 계속 갚으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는 더 큰 은혜로 갚으실 거고 그 은혜가 결국에는 그 사람을 변화 시키겠죠

그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들과 대적자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 어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맞습니다.

그거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면 내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야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얘기해 났습니다(46:16)

우리는 그럴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다윗처럼 한번 내 마음을 확증해보시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습니다.

내 심지를 한 번 견고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원수에게 정말 선을 베풀어보겠습니다 라고 확정하시면 내가 많은 걸 하지는 못할지라도 분명히 그 전달되는 그 선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넘어가는 걸 테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를 하시겠죠.

그건 확실합니다.

내가 선을 베풀면 당장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시간이 시지나면 분명히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경험상 열 몇 명(47:12) 판단을 정확하고 시시비비를 확실히 가려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그 사람의 삶이 별로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오래, 오래 지났지만 지금은 어 이 싸우고 뭔가 이렇게 그 단칼에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정말 기도해주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을 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 형, 그 교사들도 학생들이 안 변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진짜로 제가 고등부 담당하면서 고3 졸업하고 그 다음해에 이렇게 교사를 지원해서 들어오는 많은 그 고3, 대학생, 그 1학년 학, 그 형제 자매님들의 입에서 선생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랑을(48:15) 많이 들어봤습니다.

중2 때, 중3 때 고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 그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줬고 그리고 이렇게 나를 권면해줬고 저랑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줬습니다.

저도 그 선생님 닮고 싶어서 중고등부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뭐 초등부 지원했습니다

이런 분들 참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사랑은 이게 은혜로써 굳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13장 한 번 보면

히브리서 13장 9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써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써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
니라

No os dejéis llevar de doctrinas diversas y extrañas; porque buena
cosa es afirmar el corazón con la gracia, no con viandas, que nunca
aprovecharon a los que se han ocupado de ellas.

여러가지 우리가 많은 말씀도 있고 교훈도 있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뭐가 가장 효과적이냐 은혜와 사랑이거든요

다윗은 어 그 사울 자신이 변화시킬 수 없, 없는 존재였잖아요

너무 막강했고 그리고 자신에 대한 마음도 너무 완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순간적이나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은혜를 베푸는 것
이었어요

굴속에서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뒤애가 보면 또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 이거 그 창과 물병만 가
지고 오잖아요

확실한 것은 은혜와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은혜를 베풀기로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마음에 좀 확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용납해야 되고 용서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Antes sed benignos unos con otros, misericordiosos, perdonándoos unos a otros, como Dios también os perdonó a vosotros en Cristo

그랬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다른 형제 자매님들을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용서의 근거라는 것이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물어 봅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70번 씩 7번이라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의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 한 나라가 지기도 힘든 어마어마한 빚인데 개인이 졌어요

그런데 값은 것이 없으므로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줬는데 일백 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가다가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자신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해봤을 때 나는 1만달란트나 탕감 받았는데 이 100달란트쯤이야 하고 그냥 가볍게 용서를 해줘야 겠다 주인이 기대하는 마음, 바로 그거거든요?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동관들이 동료 관원들이 문제가 생겼고 주인에게 가서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주인이 불러다가 따지잖아요.

나는 너를 1만 달란트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줬는데 너는 이 동관,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자 내가 이를테면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호소를 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판단은 똑같이 판단하실 거라는 거죠

너는 영원히 벌 받아서 지옥가기에 마땅한 사람인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죄도 용서해주고 하나님 자녀 삼아도 주고 지금 이 직분을 주었는데 너에게 1백 데나리온을 진 조그마한 잘못을 한 사람들, 피해를 끼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용서의 근거가 뭐냐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12, 15장에 보면 그 이제 종이 된 히브리 종이 됐을 때 이제 면제년이 되면은 매 7년마다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 네가 애굽 땅 중 되었던 곳과 네 하나님 여호와 께을, 께서 너를 속하였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네가 오늘날 이같이 네게 명하노라 그랬거든요

니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어떤 상태에 있었고 어떤 은혜를 받아서 광야에서 나오게 되었, 광야로 나오게 되었고 광야 40년을 어떻게 지냈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네 형제에게 강박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대적자, 원수들을 딱 한 번에 단칼에 쳐냈으면 좋겠지만 처리가 안 돼요.

그럼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윗처럼 사울을 은혜를 베풀고 또 은혜를 베풀고 또 도망가고 또 피하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사울의 마음도 바꾸고 사울을 해결하는 건 결국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걸 부탁드립니다 에는 사울에 대한 처리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랬는데(54:37)** 하나님이 잘 처리해 주셨잖아요? 한꺼번에 요나단까지 다 처리해주셨잖아요

왕이 방해될 수 있는 모든 대적들을 한 방에 다 해결해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이 **확정되는 것이 필요하구나(54:52)**

특별히 이사야서에 보면 심지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잖아요

이사야 26장 한 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1)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곁을 삼으시리로다

En aquel día cantarán este cántico en tierra de Judá: Fuerte ciudad tenemos; salvación puso Dios por muros y antemuro.

(2)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찌어다

Abrid las puertas, y entrará la gente justa, guardadora de verdades.

(3)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Tú guardarás en completa paz a aquel cuyo pensamiento en ti persevera; porque en ti ha confiado.

(4)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Confiad en Jehová perpetuamente, porque en Jehová el Señor está la fortaleza de los siglos.

나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갈까 **흔동 될 때(55:50)** 하나님이 견고한 성읍이 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원으로 성과 곁을 쌓는다고 했잖아요

물론 느헤미야가 와서 그 예루살렘 성곽을 그 성벽을 쌓았지만 그의 성벽은 보이는 성벽이었고 실제로 이스라엘을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찌어다** 이 믿음을 지키는 나라거든요

그 **것은?? (56:18)**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더군다나(56:23)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에 평강으로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태도 이웃에 대한 태도 그리고 대적자들과 원수들에 대한 태도를 확실히 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보복을 하거나 원수를 갚으면 평강이 사라져요

기도가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순간적으로 시원할 수는 있지만 찢림은 계속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원수와 대적자들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은 평강으로 갚으시고 그리고 그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상을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 다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8편 보면

시편 58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Entonces dirá el hombre: Ciertamente hay galardón para el justo;
Ciertamente hay Dios que juzga en la tierra.

이 땅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늘에서 지켜보세요.

의인에게 값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당장 값음이 없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값아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다 판단 하신??(58:12)**하나님이 되셔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다윗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마음이 고생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 과정을 잘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자칫 실수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 뜻을 오해해서 사울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다윗을 시험해 보시는 거잖아요

이 상황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이제 딱 지켜보시는데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마 굉장히 기뻐하셨을 거예요

너는 100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 사울과 어떤 그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주셨고 그리고 나라를 세우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십여 년 이상 쫓겨 다닐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다윗에게로 돌려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하 딱 넘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사모했다고 그랬습니다

왕에 대해(50:48) 사모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또 7년 반을 참조

왜?

사울의 아들이 왕을 하고 남쪽 유다에서는 유다 왕국을 만들었지만 아마 전쟁을 했으면 틀림없이 이겼을 거예요

또 7년간을 참습시다.

그리고 나중에는 저쪽에서 스스로 다 모든 걸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래서 적들은 이방인, 이방인 적들을 위해서는 이 다윗이 보면 어떤 잔인할 만큼 이렇게 용서가 없었는데 동족들에 대해서는 참 많이 참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물론 사울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다윗의 진정한 적이었냐? 진정한 적은 사울이 아니라 자신이었겠죠.

그래서 정말 자신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도 정말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많아요 많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위기들을 극복해야 되냐 다윗이 가졌던 믿음 그리고 이성보다는 그 믿음을 선택하는 거,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 간구하는 거 그리고 심지를 견고해 가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정말 그 다윗이 그런 많은 시련들을 잘 통과할 수 있었던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자그마한 수고와 희생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두루 역사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또 저희들 귀를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마음이 늘 하나님께로 나가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고 또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서 저희들의 맡은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 심령 속에서 치우침을 깨우치게 해주시고 저희 들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시며 하나님이 정하신 걸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삶과 특별히 저희들의 남은 생애에 하고 있는 봉사를 주님의 의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